

노사상생으로 지역경제 활로 찾자

쌍도 파업 소용돌이에 빠진 기아차

광주공장 벌써 1000억원 손실... 62만대 증산 벼락

올 상반기 62만대 증산프로젝트의 지연으로 한차례 휴업을 겪었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이제는 '파업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올해 기아차 노조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5차례의 부분파업을 실시해 광주공장에서도 1000억원대가 훌쩍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지연과 협력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아차의 파업사태를 들여다보고,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제시한다.

증산 대비 설비 갖춘 협력업체 발만 동동 100만대 생산도시·고용 창출 기대 찬물

◇광주공장 매출손실만 1000억원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월급제(고정급 확보) 개선 요구를 골자로, 사내 하청 정규직화, 성과급 순이익의 30% 요구,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상여금 800% 인상 등 20개의 별도 요구안을 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금교섭의 해인데도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 등 단체협약 사항을 제시해 사측과의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근도 중단한데다 지난 2일부터는 잔업까지 거부해 광주공장의 경우 차량 생산차질만 5800여대, 매출 손실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오는 6일에도 파업이 예정돼 있어 이번 주말까지 감안하면 생산차질 7000여대, 매출 12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증산계획, 시작부터 파업으로 몸살=증산을 통해 62만대 생산능력을 구축하고, 연매출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지역 고용창출과 협력업체 동반성장,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공약에 따른 관심 등을 상반기 광주지역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였다.

하지만 증산 프로젝트는 노조의 일정 등으로 목표였던 2월에서 4개월이나 지체됐다. 광주시장 및 경제단체 대표의 노조방문과 성명서 발표, 협



역대 최장·최대·최다 파업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 기아차 노조의 파업 출정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력업체 임직원의 호소 끝에 6월이 돼서야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증산체제가동도 잠시였다. 본격 양산에 들어간 8월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증산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공장에서 국내 출시 전 주력시장인 북미를 겨냥해 지난 8월 26일부터 수출용으로 양산된 신차 PS(쏘울 후속 모델, 국내는 10월 출시 예정) 역시 북미시장 최고 인기 차종임에도 파업과 맞물리면서 초기 물량 양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커지면서 해외공장도 관련된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낮은 생산성은 물론, 거의 매년 파업을 일삼는 국내 완성차 공장에 비해 해외공장의 경우 높은 생산성과 유연한 노동환경으로 갈수록 수익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아차 국내공장의 HPV(자동차 1대 생산시 평균시간,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2010년 기준 30.6으로, 경쟁사인 한국GM 21.9나 미국 포드 20.6, 일본 토요타 27.6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기아차의 중국합작법인인 동풍일

달기아나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공장 등은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인력 운영 등 노동 유연성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관행 측면에서 국내공장보다 높은 유연성을 가진 게 현실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국내공장이 해외공장과 비교해 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투쟁적인 노사관계 및 경직된 유연성으로는 힘들다"며 "노조가 당장의 결과보다는 한 걸음 더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은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월마트 등과 제휴 을美 시장 냉장고 10만대 판매

광주에 국내 생산기지를 둔 동부대우전자가 냉장고를 앞세워 미국 가진 유통시장 강화에 나섰다. 3일 동부대우전자에 따르면 이달 미국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Walmart)와 코스트코(Costco), 베스트바이(Best buy)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부대우전자는 코스트코 신규 진출로 냉장고 2만5000여대를 공급하며 월마트에도 2만대를 수출한다. 특히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체인 베스트바이에서도 소형냉장고 판매를 진행하는 등 올해 미국 시장에서 냉장고 전 제품군을 걸쳐 총 1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동부대우전자는 그동안 현지 딜러를 통해 지역별 전문매장에 제품을 공급했지만 유통망 확대 전략에 따라 지난 5월 월마트에 전자레인지 50만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엔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잇따라 파트너십을 구축,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내년에는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재진출하는 등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소비자가 동부대우전자 냉장고를 구경하고 있다.

북미 생활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여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소 추석 상여금 평균 83만원 지급

중소기업이 추석 상여금으로 평균 83만원을 직원들에게 줄 계획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닷새간 전국 중소기업 631곳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추석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업체당 평균 2억5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확보 가능한 금액은 1억7460만 원이었고, 부족한 금액은 8450만 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32.6%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6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추석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로 기본급의 67.6%, 정액으로는 평균 83만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추석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43.6%가 '추석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추석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13.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매출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부진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확보가 어려워진 탓이다. 추석자금 사정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매출감소'(68.2%)가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 및 지연'(49.2%),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38.1%) 순이었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도 어렵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6.3%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는 3일 어린이의 자동차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엔지 인 더 후드'(Enzy in the Hood, 자동차 속 세상)라는 이름으로 주인공 '엔지'를 비롯한 5종의 캐릭터를 선보였다.

기아차 대표 캐릭터 '엔지와 친구들' 공개

다양한 세대와 신선한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엔지와 친구들'은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속성을 본따서 만든 주인공 캐릭터 '엔지'를 비롯해 ▲라디에이터의 속성인 바람으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라지'(Razy) ▲워셔액과 같은 액체를 가공하는 '아쿠'(Agu) ▲전기를 생성해 배터리를 하는 '토리'(Tory) ▲

자전거 라이트와 같이 빛을 활용하는 '라이토'(Laito)로 구성된다. 기아차는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 광고 영상을 9월부터 방영할 예정이며 향후 캐릭터 전시회를 열어 어린이들이 캐릭터와 함께 자동차 속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33.74 (+8.93)	▲ 코스닥지수 525.89 (+0.71)	▲ 금리 (국고채 3년) 2.93% (+0.01)	▼ 원·달러 환율 1097.90원 (+8.93)
-------------------------	------------------------	-----------------------------	----------------------------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명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NC점 : 062)510-7040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062)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1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